

# 부처님 법따라 '정론직필' 하기를...

## 불교계의 나침반 되어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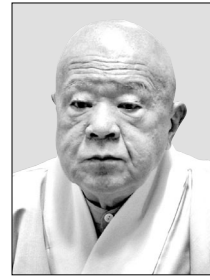
불교조계종 종정 대행 혜인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20여년간 한국불교정론과 정법 방향을 제시 해주는 언론으로써 불교계일 제자 수보리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는 자주 만나야 하고, 산길도 자주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을 찾지 않으면 길이 없어지듯 이제 현대불교를 찾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여 불교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라는 독특한 전통으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나라의 어려움을 단지 수행이라는 명목 하에 도외시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없이 극복해 나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의 나침반이 되어 불교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에 따로 율곡이 정론직필하는 신문으로써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언론불사의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자

대한불교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



언론불사의 그 막중한 사명을 다하며 창간 20년 그 크나큰 성과를 이루신 현대불교신문에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펴는 불교언론의 역할은 한국불교가 바르게 정진하는 크나큰 힘입니다. 구석구석 두루 살피고,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불국정토가 구현 되도록 노력해 온 20년의 성과는, 현대불교신문만의 성과가 아닌 한국불교 전체의 큰 성취입니다. 94년 10월 15일 창간하여 한국불교언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온 현대불교신문은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이 아니라, 불교언론의 선두주자로서 불교 최초로 정보센터 건립과 책방 여시아문을 운영하는 등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다방면의 포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승가는 물론 재가불자들의 신행지로서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이끌어냈으며 범종단의 기치로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 정신개혁의 주역에 찬탄의 박수를

(사) 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봉축합니다. 오늘은 더 없이 기쁘고 감격스런 날입니다. 창간된지 어언 20년 불교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 역사의 횃불 역할을 해온 정론지로서 살아있는 산 증인이요 역사였고 불교인들의 지팡이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 불교 최고의 언론지로 우뚝 서 오늘에 이른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사랑과 자애로운 미소를 듬뿍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혼탁한 사바세계에 탁마의 붓이 되고 중생들의 고통을 나누는 불교정화, 정신개혁의 주역이 되길 기원하며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불교의 발전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한국불교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문서포교의 힘은 무한합니다. 새로운 불국토를 향한 현대불교신문의 큰 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불제자로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대 이정표 자임하는 포교 매체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흥산 현불 스님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아름다운 화엄의 세계를 연출하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의 풍만함처럼 중생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신뢰 가득한 도반 같은 신문입니다. 대행스님의 원력으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발 빠른 교계의 소식은 물론 부처님의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교계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지난 20주년을 주추삼야 백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심고 궁지와 자부심을 마음껏 드러내며 불자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에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윤리와 도덕이 몰락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불법(법)마저 희미해 갈피를 잃은 오늘날 현대불교신문이 대행스님의 창간의 뜻을 깊이 새겨서 시대의 이정표를 자임하는 언론이 되어주시고,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매년 새 기획물로 진일보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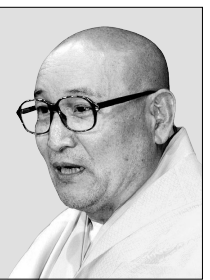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 그 큰 공덕을 전 종도와 함께 찬탄합니다. 20여년 이룬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을 두루 밝히고 부처님 혜명을 바르게 이어가도록 불교언론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존의 관행에 의해 한국불교가 지속되어 오던 혼란의 90년대에 새로운 창간의 기치로 모두를 놀라게 한 현대불교신문이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문서포교의 큰 발걸음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편집으로 기존 불교언론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책방 운영을 통해 불서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기획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쉬임없이 달려 온 20년의 불교언론으로 청년 현대불교신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 휴간없는 노고 이루 말할 수 없어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봉축합니다. 주간신문으로서 20년은 참으로 그 과정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한 번도 휴간이 없이 발행하면서 진실된 언론의 역할을 다 해오셨습니다. 휴일이 겹치는 주간에도 휴간없이 발행해 온 임직원의 노고는 뒤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범 종단지로서 한국불교의 각 종단을 두루 살피며 상호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한국불교의 많은 종단들은 현대불교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종단들을 두루살피 주었으며 불교행사라면 어디든 동참하여 지면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각 종단은 물론 사회단체, 봉사단체, 신행단체 등 새로운 기사를 발굴하여 다양한 한국불교의 모습을 계속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 외호의 큰 대업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 언론 사명감 투철하게 지키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신희 스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울금 한길로 부처님법을 전하며 발전해온 현대불교신문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0년전 불교 언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질적인 면을 크게 향상시켜왔습니다. 특히 큰스님들의 지상법석, 사부대중들의 마당인 시방세계 등 굵직한 기획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문화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습니다. 창간부터 오늘까지 불교계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솔직한 지적도 해주는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도 투철하게 지켜온 현대불교신문입니다. 창간 20돌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의 발행 정신을 잊지 말고 불교의 최일선에 서서 우리 불교를 외호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법향이 온 지구 나아가서 우주법계에 두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제1정론지로 위상강화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인간생활이 단순하고 그 변화가 완만하여 여러가지 소식도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도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생활이 확대되고 복잡해져서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러한 다양하고 신속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해서 사회생활에 대처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에서 불교소식을 전달해주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년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생활 신행지로서의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불자들이 가야할 길을 다양하면서도 심도있는 기사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계의 제1정론지로서 불교의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며 발굴해 내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홍포의 최 일선에 서 있는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신행 전문지 역할에 충실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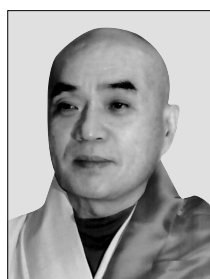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청년 현대불교신문 그 성취를 봉축합니다. 한국불교를 증명하며 그 역사를 기록해 온 20년, 그 왕성함이 한국불교의 발전과 함께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론의 가치를 지켜 온 현대불교신문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뻐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불교언론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한 길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신행 전문지로서 꾸준히 길을 걸어온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신행신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진행해 온 신행수기 공모는 불자들의 신심을 점검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정기적인 성지순례는 한국불교를 재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승가와 재가가 함께 발전하고 정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국불교에 큰 바람을 일으켜 온 20년 현대불교신문이라면 앞으로도 20년, 50년...쉬임없이 발전하여 한국불교의 큰 발전에 그 역할 다하시길 바랍니다.

## 각 종파 두루 살피는 중도언론으로

(사)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



창간한 이래 불교홍법에 앞장서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 언론으로서 불교계를 화합하고 불자들의 뜻을 모아 이 땅의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론직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의 명분이 되어 있는 이 말을 꾸준히 지켜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치우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언론이라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파나 논리에 휘말린다면 더이상 언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대불교신문은 신행지라는 지향점으로 각 종파를 두루 살피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20년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 깊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단과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현대불교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합장발원합니다.

## 범종단지로 불교현안 담아 내자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 청파 스님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20년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지면신문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현대불교신문과 지면 신문은 함께 발전시키며 언론의 역할을 다 해 오셨습니다. 한국불교 구석구석 분별심 없이 종파를 초월하여 담담히 담아 내며 살펴 온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 유일의 범 종단지의 위상입니다. 범 종단지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역의 불교현안들을 고루 담아 내 주었기에 현대불교신문의 위상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종파로서의 한계성을 넘어 한국불교의 한 종파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불교가 아닌 지방 산골 암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담아내 주신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신명나는 환희심 전해주세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상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이래로 언론을 통한 포교에 매진하여 천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스님들의 법문, 불교교리, 신앙생활, 각 종단의 소식을 전하는 등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간 20주년을 맞는 지금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빠른 사회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의 포교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구세대, 젊은세대 구분없이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기사로 다가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신명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심있는 불자들의 생활상들을 많이 소개하여 누구나도 불법(佛法)을 열심히 공부하면 행복해 진다는 것을 불자 외에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문서 포교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의 큰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불교계 제일의 정론지로서 올바른 메시지를 제시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불교의 등불로 자리매김 하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불법홍포의 정론으로 20년...찬탄하는 이날이 오기까지 정진의 자세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오신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종단지로서 정법을 수호하며 문서포교와 인터넷포교의 일선에서 앞장서 오셨습니다. 승가는 물론 재가불자들의 신행에 큰 강을 열어주시는 그 노력은 한국불교의 등불이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는 한국불교의 지향점입니다. 그 기치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두루 살피주시고 질책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각계의 심층보도를 통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조명하는 활발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성장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시길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 성년맞은 현대불교에 희망메시지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발간을 시작으로 불교계에 첫선을 보인 후 어느새 스무살 성년이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한결같은 불심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불교의 사회참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하게 대변해 왔으며 서로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보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는 매체로 현대 한국불교의 이름과 성장, 발전을 함께 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변해 왔듯이, 앞으로도 불교와 한국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신문사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유익한 정보제공, 여성불자에 큰 도움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불교계 소식을 제공하고, 불교홍포에 힘쓰고서 불교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을 비롯한 기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이래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신행과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불교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역시 여성 불자들의 구심이 되어 불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교계의 대표적 언론으로서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